

News

"KB증권, 우리은행은 라임 부실 알고도 펀드 팔았다"

KBS뉴스

KBS뉴스는 "손실을 고객에게 전가할 수 있다"는 내용과 "라임에 대한 대출 담보비율을 50%로 높이면 KB증권의 손실은 제한적"의 내용이 담긴 문건을 발견
우리은행 내부보고서의 경우 라임펀드 판매가 한창이던 때 "신용등급이 없는 기업들 중심으로 투자하고 있다", "최대 30%의 손실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

부코핀은행 소송에 미얀마 쿠데타까지...국민은행 글로벌 전략에 부담일까?

아시아투데이

KB국민은행의 글로벌 전략에 장애가 발생. 자회사 인도네시아 부코핀은행을 두고 대형 소송에 휩싸이고 최근 법인을 출범하며 공들였던 미얀마에서 쿠데타 발생
다만 국민은행은 전략의 큰 틀은 수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

카카오·케이뱅크, 하반기부터 기업대출도 한다

이뉴스투데이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는 올해 하반기부터 신용보증재단중앙회 개인사업자 보증부 비대면 대출을 시작한다. 토스뱅크도 7월부터 영입이 목표
이에 따라 전산 시스템이 마련되는대로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카카오와 케이에서 지역 신용보증재단 개인사업자 보증부 대출이 가능해진다.

은행 신용대출 금리, 8개월 만에 최고

한국경제

지난달 은행 신용대출 금리가 최근 8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해 빚내서 부동산과 주식에 투자한 사람들의 상환 부담이 커질 전망
은행들은 신용대출을 산정할 때 '기본금리'로 활용하는 단기 금융채 금리가 상승하면서 금리 인상이 불가피해진 면이 있다고 설명한다.

자본시장법 개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고위험 금융상품 규제 강화

비즈니스포스트

금융당국이 최대 손실가능 금액이 원금의 20%를 넘는 파생결합증권과 파생상품, 펀드 등은 앞으로 고위험 금융상품으로 분류돼 관리
소비자에게 고위험 금융상품을 판매하려면 판매 과정을 모두 녹취해야 하고 소비자가 금융상품에 가입 후 2일 안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숙려기간도 도입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 3개월 직무정지 사전 통보 받아

조선비즈

옵티머스펀드 사태의 책임 기관에 대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예고된 가운데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이 3개월 직무정지 제재안을 사전 통보 받았다.
NH투자증권의 옵티머스 펀드 판매액은 4327억원으로 전체 환매 중단 금액의 84%에 달한다.

키움증권, 1월 해외주식 월 약정금액 14조 넘어 역대 최대 기록

뉴시스

키움증권은 지난달 해외주식 월 약정금액이 14조 1000억원을 기록해 다시 한번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
지난해 1월 해외주식 월 약정금액은 약 5300억원 수준이었다. 이를 감안하면 올해 1월 약정금액은 전년 대비 약 2560%나 증가

학원, 다중시설 등 '특수건물 화재보험' 가입 쉬워진다

연합뉴스

화재보험 가입절차가 불편하고 보험사들이 위험이 큰 특수건물의 보험계약을 인수하기 꺼리면서 화재보험 미가입 사례가 많다.
금융위원회가 미가입 문제 해결하기 위해 화재보험 가입신청 조회시스템을 구축하고, 화재위험이 높은 건물은 여러 보험사의 공동 계약 인수가 가능하도록 개선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